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4>

붓다의 자유로운 탐구정신

불교를 철학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 서양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접근하였을 때 유럽의 불교학자들 중에는 불교를 철학 내지 사상으로 이해하였다. 서구의 위대한 철학자 야스퍼스 등은 불교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연구하였으며 가톨릭 신부인 라모트와 같은 위대한 불교학자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불교를 신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철학 내지 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교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물론 불교는 단순히 철학이 아니다. 그렇다고 종교도 아니다. 불교는 종교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요소를 모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선 불교를 철학으로 이해하였던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경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철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사색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철학은 일반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통이나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먼 과거로부터 진실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사상이나 신앙 대상에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철학이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은 단지 기존의 가치체계나 사상체계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념체계를 자유롭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끊임없는 질문과 검토를 통해 진실과 허위를 판별해 내자는 것이다. 철학의 이런 자유로운 탐구 정신이 붓다의 가르침의 주요한 흐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교를 철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맛지마 니카야의 우팔리 경전(Up?li-Sutta)에선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우팔리(Up?li)는 자이나교의 유력한 신자였는데 붓다와의 대론을 통해 불교에 귀의한다. 신업, 구업, 의업 삼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두고 우팔리는 붓다와 대론을 벌였다. 자이나교는 신업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붓다는 의업을 가장 중시하였다. 대론 끝에 우팔리는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붓다에게 자신을 재가신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한다. 붓다는 그의 개종 의사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재가자여! 철저히 조사하라. 그대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에 우팔리는 더욱 감동 받고 재차 불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소식을 접한 자이나교 교주는 우팔리를 찾아 그의 개종 여부를 확인한다. 대화 중 우팔리는 붓다의 가르침과 자이나교의 가르침의 특성을 비교한다. "어리석은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현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테스트나 조사에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세존의 가르침은 현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테스트나 조사에 견딜 수 있다." 우팔리는 비유로 비교한다. 원숭이를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으로 염색할 수 있지만 두들겨서 평평하게 할 수 없듯이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도 그와 같다. 두들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이다. 원숭이를 몽둥이로 두들기면 죽듯이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도 질문해 보면 결국 허위로 판명된다. 웃감은 염색도 할 수 있고 두들겨 평평하게 할 수 있듯이 붓다의 가르침도 그와 같아 자유로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서는 안되고 스스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붓다는 연기의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는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와 같이 알고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겠는가? '우리의 스승은 존경할 만한 분이니 우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와 같이 말한다' 고."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단지 위대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종교와 철학적 요소 모두 갖춘 불교
"비판하고 스스로 검증하라" 가르쳐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적인 이성은 불교를 떠받치는 토대이다. 이런 토대를 무시하고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 중심의 종교와는 달리 불교의 진리관은 신앙보다는 지혜를 강조한다. 믿음 중심의 종교의 교리 즉 도그마는 신앙을 전제로 하는 교설이다. 검토나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독단적이다. 반면에 붓다의 가르침은 비판적 검토나 사색을 중시한다. 따라서 불교에는 다양한 교리가 전개되고 발달되었다. 불교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경전과 논서가 제작되어 새로운 시대 상황과 문화에 부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의 성경이 닫혀진 데 비해 불전(佛典)은 개방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열린 자세는 경직된 교주주의(dogmatism)나 권위주의를 막아 준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한다 안한다' 마음 버리고 평상심으로 살라

지상 백고좌
묵산 스님
(보림사 주지)

서울 정릉의 삼각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림사. 도심 속의 재가선원으로서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1908~198) 거사의 제자들이 만든 참선단체 보림회의 근본도량이다. 이 곳에는 백봉 거사와 도반으로서 출·재가 선객들을 지도하고 있는 묵산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1월 15일, 1년만에 찾아뵙는 묵산 스님은 82세의 세수에도 여전히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기자를 맞이한다.

"현대불교 지상 백고좌에 좋은 법문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중생들에게는 감로수가 되어야 하고, 불교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는 기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매번 찾아뵐 때마다 불교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일깨우는 묵산 스님. 스님은 "불교는 상대성이 아닌 절대성을 강조하는 종교"라며 "스님들이 기복불교를 자제하고 자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길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못된 신행의 폐해를 알고 고쳐나가는 일이 지중하다고 말하는 묵산 스님은 지난해 말 큰스님들의 잇단 열반으로 불자들이 의지할 곳을 잃은 데 대해 무척이나 안타까워 했다.

"이제 젊은 스님들이 수행을 바르게 해야 해요. 정진도 제대로 안하고 금강경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은 알음알이를 내는 차원일 뿐입니다. 불법은 문자를 떠난 자리예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참선하지 않고는 생사해탈이 어려운 거죠."

묵산 스님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저서인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라는 책 제목을 예로 들며, '백척간두'의 앞소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육조 스님의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도리를 깨쳐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은 문자를 떠난 자리
안목 안 열리면 볼 수 없고
참선하지 않고는
생사해탈 어려워

묵산 스님

1922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생했으며 46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과 효봉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65년부터 백봉 김기추 거사를 만나 함께 공부했다. 37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토요일마다 백봉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 회원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자리는 삼세제불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리요 입이나 생각으로는 붙일 수 없는 곳이요, 금강경 등 온갖 경이 나오는 당처입니다. 육조 스님의 최상승 도리를 등지고서야 어찌 자성부처를 찾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걸식하시면서 이 집, 저 집에서 하신 설법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자리를 찾으라'는 것. 몸과 분리될 수 없는 마음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생로병사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면서도 잊고 사는 그것이 아니던가. 마치 새가 허공에 살면서 허공을 인식하지 못하듯,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을 잊고 살듯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다.

약 35년전, 강원도의 한 토굴에서 정진하던 중 허공이 부서지는 체험을 했다는 묵산 스님.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나의 몸'임을 깨달았던 그 때의 경계다.

면목 없는 자가 근본이라(無面目者是本然)/ 두두 물물이 이리 좇아 왔다(頭頭物物從此來)/ 추월, 춘화를 그대는 아는가(秋月春花君知否)/ 돌여인 젓대 부는데, 목인이 춤추더라(石女吹笛木人舞).

"마음자리를 항상 관하고 분별심 없이 살라"고 당부하는 묵산 스님.

묵산 스님이 이 때 체험한 허공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허공이 아닌, 진공(眞空) 자리였다고 한다. "천당과 지옥이 부서지고, 불보살이 다 부서졌어요. 생사 거래와 남녀노소, 일체의 차별이 다 무너졌지요. 눈, 귀, 코, 온통 몸뚱이가 다 허공이 되었어요. 내가 화엄경이 되고 법화경, 열반경,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이 되었습니다. 마음자리하나 잡아놓으면 팔만대장경이 날 떠날 수 없어요. 말쑥하게 빈 청정법신(淸淨法身)의 자리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일체 행동이 여래선이요, 조사선인 자리입니다."

묵산 스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우리 본성을 '허공'에 비유해 설법하지만, 이 '진공'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부처자리인 마음을 자유자재로 씀으로써, 텅 비어있지만 묘하게 작용하는 '진공묘유(眞空妙有)'와 하나되어 살라는 것이다. 이른 바 절대성(絶對性)으로 상대성(相對性)을 굴리고, 체로써 용을 굴리며 사는 자유인이 되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선과 악, 보리와 번뇌, 부처와 중생,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이러한 '불이법문(不二法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묵산 스님은 "보는 놈 자체를 먼저 인정해야 상대(경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내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다면 대상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본성자리에서 볼 때 생과 사는 바다의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며, 허공에 구름이 가렸다 사라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치를 알아 정법을 세우고 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깨닫고 난 후에는 경허 선사처럼 선악을 자유자재로 굴리고 쓸 수 있지만, 중생의 사표가 되려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와 절제된 행동규범이 필요하다는 게 스님의 말이다.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凡所有相 皆是虛妄)' 이치와 '오

보림회의 매 주말 철야정진을 지도 해온 묵산스님은 찾아오는 출 · 재가 선객들에게 '선의 요체'를 자상하게 일러준다.

자기 본성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대상과 둘이 아님 알게 돼

온이 모두 공함(五蘊皆)'을 알아 진공과 허공이 둘이 아닌 자리를 체득해야 안목이 열린다는 것이다. 즉 '마하반야'가 바로 허공을 걷어잡은 소리인 것이다.

"이 평등한 성품, 즉 대원경지(大圓鏡智)에서는 피차(彼此)와 친소(親疎)가 없습니다. 부처님(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자기 동반자를 모르고 사니, 관음, 문수, 보현보살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상주일체(常住一切)의 존재임을 모릅니다."

묵산 스님에 따르면, 이 마음은 '천지인 삼재의 주인이자 만법의 왕'(主於三才 王於萬法)이다. 허공은 말이 없지만 춘하추동을 만들어 내듯이 마음은 만법을 굴리는 주인공인 것이다.

"마음이란 본래 빈 자리입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사량분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첫걸음에 진공(眞空)을 얻은 후 내 바탕 위에서 묘유(妙有)를 굴리는 것입니다. 유(有)에서 무(無)로, 무에서 다시 유로 나아가되 유무를 초월해서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산 스님은 "우리가 정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주체성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며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을 항상 관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반야심경을 들으면 내가 반야심경이 돼서 행동하고, 금강경을 들으면 내가 금강경이 되어 생활해야 한다. 화두 들고 있는 이 놈이 무엇인가? 절하고, 운전하고, 책읽는 이 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

묵산 스님은 선에서 부처와 극락이 나왔기에, 불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禪)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24시간 도(道) 안에서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고 그것과 하나되어 평상심으로 살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도 법문을 마친다.

글=김재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묵산 스님이 말하는 '참선'

묵산 스님은 최근 위빠사나에 대한 관심 고조와 창가학회 등 일본 불교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며, 정통 선에 대한 쉼없는 탁마를 당부했다.

"참선을 해야만 크게 깨칠 수 있다"는 묵산 스님은 "깨닫기 위한 요체는 하얀 백지장처럼 일체를 방하착(放下着)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에 본래 없던 내가 어디 있었는가를 절실히 참구해서, 온갖 분별심일랑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

"마음을 쉬고 비우는 방하착 공부를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걸식할 수 있는 대발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부자였던 중국의 방거사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깨달았듯이 무집착, 무소유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인들은 '일체를 방하착하면 본심은 드러나고 자재하여 법왕궁(法王宮)에 노닐게 된다'고 했어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정도여서는 안됩니다. '백척간두' 조차 버려야 합니다."

비우고 쉬는 방하착이 요체
무집착 · 무소유 실천해야

묵산 스님은 "선이란 공(空)이며 부처이며 도(道)"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근본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설한다. 달마대사가 '관심일법(觀心一法)이 총섭제행(摠攝諸行)'이라 했듯이, 마음 하나만 관하면 모든 행동이 그 속에 다 포괄된다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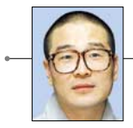
"가령 우리가 마음을 관하면 모든 문제가 다 쉬어버립니다. 물 위에서 파도가 일듯이, 그 마음 바탕에서 좋은 생각도 내고 남을 해롭게 할 생각도 내고, 온갖 사심도 일어나고 온갖 욕심도 일어납니다. 마음 하나를 집중해서 관하면 어지러운 경계가 다 사라지지요."

묵산 스님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몸과 생각을 움직이는 본성을 관하되, 육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비우고 또 비우는 공부를 지어가길 당부한다. '넓고 크게 두려움 없이 고요하게 본성자리에 비추어보라(蕩蕩無畏 寂而照 照而寂)'는 말이다.

그러나 해탈한 자에게는 정진이니, 인욕이니 하는 말이 더이상 필요 없다. 화두, 염불, 절, 독경은 방편일 뿐이기 때문이다. 땀지가 떨어진 격외장부(格外丈夫)에게는 수행법이랄 게 붙을 수 없다. 스님이 해말쑥한 성품자리에서 분별심을 버리고 '절대성으로 상대성을 굴리며 살라'고 말하는 이유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탄성 스님



절 집에 살다보면 전통적인 수행법을 벗어나 사는 스님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다. 참선이나 염불 그리고 간경과는 거리가 먼, 등산이나 여행이나 노래를 수행삼아 사는 스님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멋이 있고 타인에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수행과 구세대비의 자비심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에 귀 기울여 보면 대단히 감성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가슴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탄성 스님 역시 가슴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할 만하다. 그는 대단한 산악인이다. 쌍계사 강원에 있던 시절, 그는 틈만 나면 자일을 메고 전국의 바위산을 찾아 떠돌아 다녔다. 조금 큰 키에 마른 편이지만 암벽 등반을 해서 그런지 그에게서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팔뚝과 다리의 근육, 그리고 배에 그려지는 근육은, 그의 등반이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림 · 문병성

어느 해 겨울이다. 그가 쌍계사 강원에 있던 시절이니까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쌍계사에서 한 시간 쯤 걸어 올라가면 불일폭포가 있다.

그 폭포는 겨울이면 얼어 아주 멋진 빙벽을 이룬다. 그래서 겨울이면 빙벽등반을 하러 사람들이 더러 온다. 그도 겨울이면 이곳에 와 빙벽등반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얼음이 깨어지면서 스님이 낙상을 하고야 말았다. 빙벽에서 떨어져 다시 얼음판에 추락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불 · 보살님의 가피 덕분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는 골절상으로 인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그가 다시는 암벽이나 빙벽등반은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고 좀 지나서 다시 암벽등반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의외로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죽고 사는 것도 다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니 아무래도 죽지는 않을 인연인가 봐요."

나는 그의 무쇠 심장이 부럽기도 했지만 생사에 초연한 그의 넓은 마음자리가 더 부러웠다.

얼마 전 나는 그의 토굴을 방문했다. 흙으로 지은 십여 평 되는 토굴은 아주 깔끔했다. 방에 들어서니 난로에서 향긋한 나무 타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알프스 등정할 때의 사진과 강원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알프스 등정 사진은 그가 혼자 찍은 것들이라고 했다. 네 명이 함께 알프스 등정의 장도에 올랐지만 다른 세 명은 다치거나 중도에서 포기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찍은 사진 몇 장은 암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손을 찍은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사진의 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손만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서야 비로소 사진 속의 손이 그의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등정을 기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 정상에 선 사내의 심정과 왜 목숨을 건 등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자기실현이라고.

가슴으로 수행하는 산악인이자 목수

"등산을 하는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게 산에 오른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며 삶에 애착을 뛰어 넘는 것이며 나라는 경계를 해체하는 수행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과정이듯이 산에 오르는 일 또한 내게는 과정으로 지나갈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그는 그 이후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선방에 다니며 마음의 산을 오르고자 노력했다. 마음의 산은 눈보라 치는 알프스 정상 보다 오르기 더 힘든 것이라는 그의 말이 큰 공명을 남겼다. 마음의 산을 오르다 그는 잠시 쉬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 선방에 들지 않았다. 대신 해제 철에 배운 목수 일에 열심이다.

강원도 안흥에 있는 통나무 학교에서 집짓기를 배우고 제일 먼저 그 토굴에 잇대어 창고를 하나 지었다. 처음 지어 본 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창고는 훌륭했다. 그 창고 안에 그는 목수 도구와 등산장비를 구비해 놓았다. 요즘은 다시 10평짜리 통나무집을 짓고 있다.

산에 가면 산에 어울리고, 목수 일을 하면 목수 일이 천직인 것 같은 스님이지만 그는 새벽이면 일어나 좌선하고 하루 일을 마치면 다시 선정에 드는 철저한 수행자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선(禪)일 수 있어서 좋은 사람. 길을 가다 아이를 만나면 아이가 되어 놀고, 노인을 만나면 말벗이 되어 머무는 넉넉한 사람이 탄성 스님이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스님과 출가를 희망하는 학인들을 위한 **나란다삼장불학원**,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는 **불교예술대학**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모집기간	수시모집	수시모집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모집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약간명
수업연한	2년(4학기)	경,율,론 각과정 1년	사미과, 사집과,사교과, 대교과 각과정별 6개월	기초, 중등, 고등, 대학 각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매주 1일 수업	매주 1일 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행하시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포교원 운영하실 분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 시	수 시	2004년 3월 3일까지	수 시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전법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법사,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2004년 국제수계 참가자격부여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기숙사 입사 희망자 집중수련	우수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 수여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김호암스님, 남진각스님, 김진궐교수님, 이지행교수님, 김익순교수님,서무선박사님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학장 활안(한정섭),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예술대학장 남진각

문의처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정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베개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